

전 남

오징어 사라진 남해안 고등어 급증

한반도 근해 수온 41년새 1.3도 상승...어장환경 급변

“기후변화 따른 수산업 전략 마련돼야”

한반도 근해의 수온이 지난 41년간 1.31도 상승하면서 아열대성 어종이 연근해를 차지하는 등 어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미래 어장환경을 예측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환경변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적응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서영상 수산해양 종합정보과장은 최근 부산기상청에서 열린 기후변화 포럼에서 “기후변화와 수산분야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을 위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계획으로 수산분야 적응 시스템 구축과 생태해상 어구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1년사이 바다수온 1.3도 상승 =연구결과 1968~2008년 지난 41년간 동해와 남해, 서해의 수온은 1.29도와 1.27도, 1.23도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조대형 노랑가오리류와 보라문어, 고래상어, 붉은 바다거북, 흑새치, 은쟁게 등 아열대성 어종이 연근해에서 종종 발견되는 등 수온에 민감한 수산자원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겨울철 제주 해역과 남해안에 주로 형성되던 오징어 어장은 1990년대 후반 들어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반면 1980년대 전반까지 비교적 높은 수온이던 명태어장은 수온상승과 함께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다. 서해의 경우 참돔어가 잘 잡히지 않고 병어 어획량이 늘었으며, 남해는 고등어·멸치 등 난대성 어류



가 증가했다. 아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는 참다랑어 역시 최근들어 제주 앞바다에서 많이 잡힐 뿐만 아니라 제주와 통영 등지에서는 양식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근해 양식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팽복성 ‘노무라입깃 해파리’ 출현 빈도가 늘고, 해파리 사막화 현상인 ‘갯녹음’ 피해 지역이 제주와 울산, 경북을 넘어 강원도까지 확대됐다.

◇기후변화 대응방안=수산분야 적응 시스템 구축 추진방향을 모델 예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주요 상업적 어종 어종의 분포해역 변화를 비롯해 ▲해류시스템 변화와 주요 어종의 어획량 증감예측 ▲대형 해파리, 불가사리 등 유해생물 어업피해 경감기술 개발 ▲극한 환경대비 양식시설 등 수산기반시설 안전도도 ▲어장별 미래 수산자원 조성 및 개발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서영상 과장은 “어자원은 기후와 해양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위적인 관리보다는 기후 변화에 순응한 자원개발·이용이 요구된다”며 “어업인들 스스로 어족자원 남획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담양군-남부대 지역발전 손 잡았다

관·학 공동발전 협약식

지방화와 정보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와 대학이 상호협력,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관·학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최형식 담양군수와 조성수 남부대 총장은 지난 27일 남부대 총장실에서 공동발전 협약체결식을 갖고 상호협력력을 통해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식정보의 교환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다해 나가기로 하고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산업과 관련한 연구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 앞장서기로 했다.

조성수 총장은 “담양군과 진정한 동반자로서 확고한 현장감을 배우고, 지자체는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보완하며 상생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형식 군수는 “담양군은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맞춰 대나무 엑스포를 개최, 관광 담양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으며 남부대의 우수자원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강진군도서관에서 열린 ‘제6회 도서관 문화미당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풍선모자를 쓰고 즐거워하고 있다. 군 도서관은 지난 29~30일 ‘내 인생의 길잡이, 도서관’이란 주제로 독서관련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강진군 제공)

나주에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다시면 회진리 2014년 건립

당초 경북 안동에만 건립하기로 했던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가 나주에도 들어선다. 민주당 소속 최인기 국회의원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256번지 일대에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나주에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천연색소의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치를 증대시킬 새로운 녹색성장기반이 구축돼 약용작물 산업화로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며 “연간 5000억 규모의 국내 천연색소 시장 선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남도와 나주시는 “나주지역이 주요 약용색소자원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중요무형문화재 염색과 천연염색 공방 등 인적기반 및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천연색소 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 지원할 기관이 없다”며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유치를 정부에 건의해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water 전남본부 민·관 대표자 상생협의회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석천)는 지난 29일 NGO를 비롯한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석천 본부장은 신임위원 안종선(환경보존연합회)씨 등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이번 상생협의회에서는 국책사업인 영산강 복원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에 완공에 따른 지역이슈 및 사회적 책임을 위한 K-water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토의됐다.

전남지역본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상생 협의회를 열고 있다.

“노고단 케이블카 빨리 설치해 주요”

구례군 관계당국 설득·현수막 홍보 나서

구례군이 지리산 노고단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2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9년 9월 승인 요청한 구례군 산동면~삼상재~지리산 노고단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조속한 성사를 위해 관계당국 설득과 현수막 홍보 등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로 했다.

우선 사업 승인권자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당국은 물론 외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설치 당위성 등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또 지역 곳곳에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현수막도 게시하기로 했다.

전국 최장인 4.5km 길이의 노고단 케이블카 사업은 군이 지난 2008년 로프웨이 추진위까지 결성, 이듬해 환경부에 지리산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했다.

군이 이 사업에 나선 것은 케이블카 설치 구간내 도로가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를 관통,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매연과 분진, 소음, 로드킬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는 숙원사업”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2826@kwangju.co.kr

환경부 등 당국도 노고단 케이블카 사업을 긍정적으로 판단, 사업승인을 하려다 경남 산청과 함양, 전북 남원도 사업승인을 요청하자 부담을 느껴 사업 승인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단체에서 환경을 훼손한다며 케이블카 반대운동을 벌인 것도 사업승인 지연의 한 이유다.

이에 대해 구례군 관계자는 “노고단 케이블카는 지리산 삼상재 차량통행에 따른 대기 오염, 교통사고, 로드킬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는 숙원사업”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2826@kwangju.co.kr



유치원 ‘손 씻기 365 운동’ 호응

화순군보건소 기생충 검사도 병행

화순군이 관내 유치원을 순회하며 ‘손 씻기 365 운동’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화순군보건소는 지난 28일부터 2일까지 관내 유치원 5개소 243명을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 및 손씻기 교실을 운영했다.

군 보건소는 세균성 이질과 유행성 농병 등 집단 감염병 유행 방지를 위해 365일 손 씻기 생활화를 강조했다. 또한 체험교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지도했다. /중부취재본부=정은수기자 unsu@kwangju.co.kr

다. 이와 함께 ‘법정 제5군 감염병’인 기생충(요충) 검사도 병행 실시해 감염자는 투약조치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김연수 군 보건소장은 “감염병의 70%는 손을 통해서 감염된다”며 “평소 손 씻기와 같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게 되면 평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은수기자 unsu@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반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임대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TEL)011-602-2532 (광주영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세정공인중개사

전원주택지 ★급 매★

허가필, 6m도로 남향, 임야 6600㎡ (2000평) ㎡당 20,000원 [위치]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공장및 창고부지 ★급 매★

대형차 진출입 가능 8450㎡ (2770평) 광주에서 20분

세정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옆 375-0040 011-606-2231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원문부지 생활주택 적합 백운동 로타리에서 무진중학교 가는 길 2층 주거지 256평 김장 59석 매도 3999천
- 교회건물, 구시청(이비트)매대지 71건평 239(4층 건물) 노인요양시설포함 은행 1억 7300만원 매도 5944천
- 대인동 소방도로너머 5층상가건물 매대지 67건평 210공시지가 2998천 대용도 사용 4966천만원
- 유동 모델 매대지 133건평 306요양시설적합 694천
- 유동동 명 1632평 창고 350평 공시지가 1492천 매도21억
- 교회부지 내방동 484평 대용도 7억 899천
- 금남로5가 대문동 매대지 496건평 872공시지가 75392천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99천
- 화순 이양면 소재지 국도점 주거지역 596평 창고·공직적합 대용도 566백 공시지가에 매도 8700만원
- 금남로5가 매대지 80건평 300공시지가 13993천 매도 1195천
- 금남로4가 구 광주은행 4가리 매대지 494 건물은 301평과 680평 2층 있는 공시지가 87억 5천 매도 35억
- 광주역 앞 원문 매대지 108건평 983건평 1993천 매도 6억 7천
- 황금동 4층 상가주택 매대지 68건평 145 매도 393천
- 주유소 화순읍 명 1118평 공시지가 1099천 매도 1595천
- 동림동 아파트 예정지역 계획도로 코너 매대지 135평 1946천
- 롯데백화점 부근 매대지 90평 4층 건물 공시지가 5억 매도 495천

■매도·교환

- 화순군 동면 서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중음 197500
- 남평읍 교원리 버스도로점 211평 주택과공장 196천8백
- 산수동 호남맨션 2층주거지 220평 사설빌라적합 2947천
- 하남공단 도천동 자연부지 506평 공장적합 3998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가리 1층)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제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시설	· 서구 쌍촌동 3층상가 매대지 55평 건평 100평 · 김장72억 6천만 최자가 1억 98천만
농가시설	· 광산구 비동동 3층상가 매대지 73평 건평 131평 · 농가시설 김장73억 3천만 최자가 2억 4천만
단독주택	· 서구 벽진동 매대지 143평 건평 57평 · 김장71억 4천만 최자가 9천 9백만
전원주택	· 화순군 능주면 매대지 135평 건평 56평 · 2층주택 최자가 6천 5백만
근린주택	· 곡성군 곡성읍 2층상가주택 매대지 31평 · 건평 62평 김장71억 3천만 최자가 8천 9백만
다가구	· 서구 화정동 3층 매대지 63평 건평 105평 · 김장73억 2천만 최자가 2억 2천만

광주 서구 마곡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앞 유지발당 501

전원주택지 금매

남구 대지동(대촌부근), 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나대지 886㎡(268평) 매대가 9800만원 (3.3㎡당, 365,000원).

나대지 금매!!

●서구 금호동 서광주역 나대지 178㎡(54평), 택지개발지구, 매대가 3.3㎡당 160만원.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서구 매월동 서광주역 앞 전, 2,590㎡(783평) 3.3㎡당 98만원.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서구 세하동 임야, 면적 3,835㎡(1160평), 4m, 진입로, 매대가 3.3㎡당 65만원, 자연녹지, 현재 임야.

●북구 화암동 매대지 433㎡(131평), 전, 임, 1,994㎡(603평) 구 주택 2동, 매대가 1억 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서구 쌍촌동 2차선도로변 나대지 513㎡(155평) 제2종일반주거지역매대가 3.3㎡당 235만원, 카센터, 식당, 업무용빌딩 적합.

●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접함, 993㎡(300평), 매대가 18억, 회사사옥, 업무용빌딩.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보증금: 10억원 월세: 4,300만원(부가세별도) 매대가: 73억원
- ☆.보증금 1억 월세 2,400만원(부가세별도) 오피스텔 매대가: 32억원
- ☆.보증금: 8억2천 월세: 1,330만원(부가세별도) 매대가: 28억원
- ☆.보증금: 1억1천 월세: 350만 매대가: 6억7천

★전원주택

- ☆.광산구 오운동 매대지: 322㎡ 건물: 95㎡ 매대가: 5천만원
- ☆.광산구 오운동 매대지 4,926㎡ 건물: 66㎡ 매대가: 2억 9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1,330㎡건: 60㎡ 매대가: 2억 9천만원
- ☆.담양군 수북면 공산리 전원주택단지 내 매대지 654㎡ 매대가: 1억 2천 8백만원

★대지, 전, 답, 임야

- ☆.치평동 매대지: 370㎡ 매대가: 13억 5천
-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 옆 35M도로점 매대지 677㎡ 매대가 ㎡당 3백만원
- ☆.압촌동 정작촌마을대: 3,600㎡ 매대가 4억 9천
- ☆.광산구 옥동(명동) 주거지역 답, 4.38㎡ (원룸적합) 매대가 ㎡당 20만원
- ☆.광산구 우산동 답 279㎡ 매대가 4,200만원
- ☆.장성남면 임야: 13,500㎡매대가: 4억 5천만원

★무인모텔

☆.광산구 우산동 무인모텔 대 183평 건 500평 객실 32개 매대가 15억 5천만원.

062-374-5945 010-3162-4989